

대상 수상작

사범대학에서 왜 일반대학원을 갈까?

교사의 꿈을 가지고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4년간 ‘임용고시’ 만을 바라보며 공부해왔다.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시험을 합격하고 나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눈앞에 나타난 결과는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였다. 이는 인생 처음 겪은 실패였으며, 이제 더 이상 무슨 노력을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대학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난 시험도 망했는데 뭐라도 하자, 쥐구멍에 숨고 싶다. 라는 심정으로 대학원에 도망치듯 입학했다. 대학원을 입학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범대학 나와서 대학원을 왜 가?’ , ‘왜 교육대학원이 아니고 일반대학원이야?’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사실 처음에는 나도 대답하지 못했다.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졸업해서 일반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내가 처음이었다. 궁금한 점에 대해 물어볼 선택도, 동기들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물음에 ‘그냥’ 이라고 대답하던 나는 대학원 졸업에 가까워진 지금 저 물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시간 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달라졌다. 이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난 대학원을 통해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떠올려보았다.

대학원에 입학해 처음 경험한 것은 다른 과와 함께 연구를 한 것이다. 과학교육학과와 함께 회의를 했을 때 “아 내가 대학원에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연구 주제에 대한 발표와 회의를 진행하며 영어로 가득한 PPT를 처음 보았고, 처음으로 가정교육과가 아닌 다른 과 사람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서 서로 다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나의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학교 다닐 때는 연구자들이 다 연구한 연구 자료의 요약집을 보고 이런 연구가 있구나 하는 결과만 확인했었다. 그러나 직접 연구 과정을 접하게 되면서 하나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노력과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른 과와 함께 연구하면서 나의 ‘꿈’ 이 생겼다.

교사가 되는 것 이외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나의 ‘꿈’ 이었다. 뉴스기사로 “~가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라는 멘트를 보았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 “이제야 밝혀지다니” 등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연구 과정을 직접 함께 하며 “난 나의 연구를 하고싶다” , “내가 관심있는 주제는 무엇일까” 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결과 난 ‘가정’ 이라는 과목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필요하고 학생들이 어떤 점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알리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이때부터 난 도망치듯 쥐구멍에 들어온 대학원생이 아닌 나의 꿈을 펼쳐나가는 대학원생이 되었다.

내가 처음 선택한 주제는 현재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인 기후변화이며 이를 가정 교과와 연계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논문검색에 ‘기후변화’ , ‘가정’ , ‘가정교과’ , ‘기술가정’ 등을 쳤을 때 논문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을 때였다.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가 아직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가정’ 교과 측면에서는 안타깝지만 내가 이 연구를 시작하고, 깊게 빠져볼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논문 작성을 위해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부터 다양한 분석 기법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대학교 수업과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가끔 피곤하면 수업에 빠지고 싶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위해 공부하던 시절과 달리 내가 흥미있어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는 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공부하는 선택도, 동기들도 없었지만 교수님께 1:1 과외를 받는 것처럼 항상 질문 폭탄을 준비하며 열심히 연구했다. 동기들에게 의지하고 끌려가며 했던 공부와는 다르게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를 깨닫고 내 연구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 말로 들어보기만 하던 자기주도적 학습을 스스로 실천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끌어야 한다고 한다. 나도 이 사실은 알고 있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해 본 경험이 없었다. 대학원에 와서야 자기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해볼 수 있었고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작은 무조건 나의 ‘흥미’ , ‘관심’ 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난 자기주도적 연구를 이어갔고 결과적으로 12개 출판사의 가정 교과서를 모두 분석하여 기후변화 관련 요소를 파악하고 가정교과가 이와 관련이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이를 더욱 강조하여 학생들에게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주제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었다.

그렇게 1년 동안 나의 꿈을 찾아가는 대학원 생활을 보냈다. 그런데 11월, 내가 잊고 있던 것이 있었다. 바로 ‘임용고시’ 이다. 임용고시는 지필고사로 보는 1차 시험과 수업시연, 면접으로 이루어진 2차 시험이 있다.

나는 1차 시험을 준비할 때 ‘영양학’ 과목을 제일 싫어했다. 외울 것도 많고 원리도 어렵고 개념이름도 어려웠다. 특히 ‘콜레시스토키닌’ 을 외울 땐 ‘콜레라’ , ‘콜레시리스’ , ‘콜레스테롤’ 등등 얼마나 다른 이름을 붙였던지... 개념하나 외우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서 고급영양학이라는 수업을 수강신청하고 걱정이 많았다. 그냥 영양학도 어려운데 고급영양학이라니...! 정말 수업듣기가 무서웠다. 그러나 고급영양학 수업을 들은 지금의 나는 영양학 마스터가 되었다. 대학원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 이것인 것 같다. 바로 과목에 대해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마냥 외우기에 급급했던 것들을 시작부터 이해하고 원리를 학습하고 내가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거치면서 학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졌고 내가 싫어했던 과목인 영양학을 이제는 주제만 말해줘도 술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무서워했던 식생활 파트의 전 부분에 대해 다시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식이요법, 식생활 관리, 식품과 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과 연구를 공부하며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깊은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서운 과목’ 이라는 것이 없어졌다. 내가 무섭다고 생각하기보다 더 깊게 공부하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개념, 어떤 과목이든 재미있을 수 있구나를 깨달았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이러한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내가 정말 신나게 연구하던 논문을 게재하고 만난 임용고시는 상당히 낯설었다. 그러나 대학교 수업에서 기초원리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고 개념을 파악하며 과목에 대해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방법을 깨닫게 된 나는 이 방법을 임용고시 공부에 적용하였다.

가정 임용고시는 의, 식, 주, 소비, 가족, 교육론 파트로 총 6개이다. 첫 임용고시를 봤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소비, 식은 버리자. 라는 마음으로 쫓기듯이 급하게 공부했었다. 그러나 연구 이후에는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는 습관을 적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강원대학교에서 주최하는 교사 연수나, 여러 학회에 참가하며 학교, 학생, 교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난 내가 교사가 되면 어떤 새로운 교육 정책이나, 교수 프로그램이 생기더라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생들간, 교사간, 교사와 학부모간 문제는 극히 소수의 학교에서만 나타나며 정해진 학칙과 법이 있다고 생각하며 교사는 수업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다양한 연수에 참여해 여러 교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들을 들으며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 내 생각보다 학교 현장은 전쟁터였다. 전쟁터 같은 학교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대학원에 오길 잘했다.” 이다. 내가 교사가 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갔으면 난 큰일났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더 좋은 수업,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 휴일, 방학 때도 끊임없이 연수를 듣고 전국의 여러 교사분들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고민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교사’ 라는 꿈에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교사가 되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꿈에는 이렇게 How와 What이 붙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학원에서의 다양한 경험으로 새로 생긴 나의 꿈은 ‘완벽한 교사’ 가 아닌 ‘책임감 있는 교사’ 이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려고 하며 학생들에게 정답을 제공하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수업을 제공하여 스스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며 자신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행동하는 학생을 성장시키는 교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꿈이 구체적으로 변하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을 위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은 무엇인지, 학생들은 어떤 존재인지, 화목한 학교문화형성을 위해서는 교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등 이제 더 이상 ‘임용고시’ 에 매달리는 수험생이 아닌, 내 꿈을 찾아가는 수험생이 되었다.

하루는 강원대학교 미래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일반대학원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여러 과들의 부스를 돌며 이런 과도 있구나, 이런 연구를 하시는구나 하며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내 꿈을 찾는 특강을 듣게 되었다. 처음에 특강을 들을 때는 시큰둥했다. 그러나 강의에서 내 귀를 사로잡는 말을 듣게 되었다. 바로 3단계면 꿈과 직업을 찾아준다는 것이었다. 첫째, 나의 강점을 3가지만 찾아봐라. 둘째,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연봉을 떠올려라. 셋째, 두 가지를 결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직업을 생각해 보라. 이 3단계를 들었을 때 난 내가 왜 힘든 임용고시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시험에서 두 번 실패를 하고 더 이상 시험을 보는 것에 열정을 잃어가던 즈음에 특강을 듣고 “맞아. 난 책임감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지. 그러면 앞으로 ~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다시 의지를 얻게 되었다. 난 대학원생들은 다 꿈이 있고 흥미있는 분야가 있으며 진로가 확실한 분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특강의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할까요? 아니면 잘하는 것을 해야할까요?” 라는 질문을 듣고 정말 크게 놀랐다. 대학원이라는 곳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한 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낀 경험이었다.

이렇게 대학원에 입학해서 다양한 경험으로 나의 꿈도 찾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았다. 이러한 경험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난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했을 뿐인데 대학원생 후배가 생겼다. 그토록 기다리던 함께할 동기들이 생긴 것이다. 이 후배들에게 궁금했던 점은 왜 대학원에 왔는지였다. 쥐구멍에 도망치듯 온 나와 다르게 너무 당당하고 열정이 넘쳤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들은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후배들이 대학원에 온 이유는 내가 연구하는 것이 멋있어 보였고, 그들도 가정 과목에 대해 깊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저 나를 위해 했던 공부가 다른 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놀랐고, 후배들에게 시작이 되어 줄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다.

부담을 덜어버린 임용고시를 본 지금 1차를 합격하고 2차 시험을 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필시험을 보는 1차와 다르게 2차 시험은 수업시연과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학원에서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나 선생님께 들은 경험을 통해서 여러 학교 상황과 학생들의 수준에 대해 알게 되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구상하기 쉬웠다. 또한 교사 연수를 통해 배운 온라인 수업 방식, 온라인 수업 적용 등은 수업시연에서 자연스럽게 시험 조건을 맞추고 적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면접을 준비할 때는 교사의 교직원,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는 인간관, 내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교사상 등이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학생들은 이를 따로 설정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까 고민한다. 하지만 난 대학원에서 겪은 경험으로 이미 나의 교직원, 인간관, 교사상 등이 마음 속에 정해져 있어 면접 답변을 구상할 때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를 답변할 때 설레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지금, 난 준비된 교사가 된 것 같은 기분에 매우 설레인다.

대학원 입학 시 처음 들은 ‘사범대학 나와서 대학원을 왜 가?’ 라는 질문에 난 이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 ‘어떤 교사가 되고 싶은지 찾기 위해서’ 라고 말이다. 그리고 다음 질문인 ‘왜 교육대학원이 아니고 일반대학원이야?’ 라는 질문에는 ‘교사가 되어 교사 전문성을 기르기보단 교사가 되기 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대답할 것이다. 쥐구멍에 쫓기듯 입학한 일반대학원에서 나는 책임감 있는 준비된 교사라는 꿈을 새롭게 찾을 수 있었고,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시험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학원에 대해 조언을 구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일단 한 번 도전해봐!” 내 주변에는 대학원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워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직장을 그만두고 다녀야해서, 전공을 어디로 정할지 몰라서, 학교를 어디로 갈지 몰라서, 대학원 나오면 뭐가 좋은지 몰라서 등등 많은 고민을 한다. 그러나 난 도전해보았으면 한다. 대학원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배움과 경험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도전해보지 않는다면 어떤 경험도 할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입학한 대학원이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내가 후배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작이 된 것처럼 말이다. 특히 사범대학 학생들에게도 꼭 이야기 해주고 싶다. 너무 임용고시에만 매달리지 말고 더욱 다양한 꿈을 향해 도전해보라고. 그리고 응원한다고 말이다.

대학원생 수기 공모전을 준비하며 나의 대학원 생활을 다시 돌아보았다.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돌려 처음 본 임용고시 합격 vs 일반대학원 입학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난 일반대학원 입학을 선택할 것이다. 그만큼 2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연구를 하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난 더 성장하였고 준비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임용고시 초수 합격자, 수석 합격자는 아니지만 난 내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중 가장 준비가 된 사람 일 것이라고 확신한다.